

채용신의 회화 세계 조명

국립전주박물관, ‘채용신과 근대’ 주제전시

2023년 구입한 신소장품 5건 최초로 선보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상설전시관에서 주제전시 ‘채용신과 근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채용신 학술 총서 발간 및 학술 콜로키움의 결과를 바탕으로 20세기 전반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채용신의 다양한 회화 세계를 조명한다. 이에 따르면 박물관이 2023년 구입한 신소장품 5건을 최초로 선보인다. 이 중 ‘정몽주순절도’는 고려 말 충신인 정몽주의 죽음을 그린 역사고사 인물화다. 정몽주가 조영규의 첩퇴를 맞고 선죽교 위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생생한 인물 표현, 건물과 나무의 채색 등에서 채용신의 화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밤중의 호랑이와 다람쥐를 그린 이색적인 ‘영모도’는 채용신이 1906년 정산군수직에서 물러나 김제 일대에서 그림을 그렸던 시기의 작품으로 그의 초기 영모화풍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상단에는 전북의 선비인 이정직이 쓴 글이 있는데 이를 통해 채용신과 이정직, 이정직의 제자이자 그림이 제작된 호문당의 주인인 송기면 3인의 관계를 알 수 있어 흥미롭다.

고향에 돌아온 채용신은 익산에서 금마신방을, 1926년 이후 정읍에서 채석강도화소를 운영하며 주문에 응하



채용신작 ‘정자관을 쓴 선비 초상’
(사진=국립전주박물관 제공)

는 그림을 그렸다. 꽃나무와 암석을 배경으로 한 쌍의 새를 그린 ‘화조화 10폭병풍’은 화려한 진채와 구성, 규모에 있어 궁중화조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채용신은 부부 금슬이나 화합 등 상서롭고 좋은 의미를 갖는 화조영모화를 공방에서 반복해 제작했으며,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소재와 배경을 변형했다. ‘화조영모화8폭병풍’은 사실적이면서도 독특한 동물 표현을 확

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어미뿔을 뺀고 있는 강아지, 풀꽃을 뜯어먹는 토끼, 작은 벌레를 바라보는 공작 한 쌍 등은 채용신이 구상한 독특한 도상이다.

1928년에 그린 ‘정자관을 쓴 선비 초상’은 주인공 얼굴 표현에서 근대 사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작품은 인물 뒤에 산수병풍을 넣어 하단에 걸린 화문석과 함께 공간감을 구현했다. 후에 쓰기 위해 비워둔 사각 제목란, 족자 뒤쪽 배접지의 낙관, 상단과 좌우에 비단을 붙이는 대신 문양을 그려서 표현한 점 등은 채용신의 후기 초상화의 제작 양상을 잘 보여준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다시 찾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정기적으로 상설전시실의 전시품을 교체하고 있다”며 “새로운 소장품을 조사·연구하고 전시와 발간물을 통해 그 결과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영감을 얻고 일상에서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 새해, 채용신이란 화가가 20세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방을 차려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다양한 그림을 제작했던 모습을 살펴보고 그의 새로운 시도를 즐겁게 감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용신은 고종 어진을 그리며 초상화가로 명망을 높였다. 20세기 초 고향으로 돌아와 전북 지역에서 초상화를 비롯해 화조영모화, 산수화, 고사인물화 등 다양한 그림을 제작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 최초 ‘친환경 무색투명 플렉시블 반도체 기관’ 개발

전주대 장진해 교수 연구팀… 유연성 · 투명성 동시에 제공

전주대 학교 장진해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 무색투명 플렉시블 반도체 기관 개발에 성공했다.



장진해 교수



김성진 대표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CPI 필름을 합성해야 하는데, 기존의 CPI는 불소(플루오린, F)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했다

7일 전주대에 따르면 장진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반도체 기관은 유연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소재로, (주)아진전자 김성진 대표와 함께 개발했다.

무색투명 폴리이미드(이하 CPI) 기관은 우수한 열적·기계적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플러블 및 휘어짐에 강한 내구성을 보이고 있다. 기존 기관으로는 활용이 어려웠던 반도체 소자 실장용 기관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투명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특성은 미래형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무색투명 플렉시블 기관을

면 장진해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CPI에는 불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환경 친화성을 높였으며, 재사용이 가능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PI 필름에 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미세 패턴을 구현한 것으로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투명 전자 기기, 전자 피부(e-skin)와 같은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폼팩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접거나 구부릴 수 있는 화면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해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기기, 센서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개발한 플렉시블 반도체 기관의 기본 소재가 되는 친환경 CPI를 국내뿐만 아니라 2022년 이미 국가별 특허의 질적 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한 USPTO(미국특허청), EPO(유럽특허청), JPO(일본특허청)에 3국 특허로 동시에 출원, 2026년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장진해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플렉시블 반도체 기관이 모든 전자 제품에 사용된다면 환경을 고려한 전자 소재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반도체팀 송호진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결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반도체 특성화 사업 및 클러스터 설립에 전주대학교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A등급’

전주교대, 교직 적격자 검증 노력 등에서 좋은 결과 보여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직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주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2024 교육과정 개발, 전문 입학사정관 채용 등 우수한 교직 적격자 검증을 위한 노력과 모의수업 강화를 100% 실시 등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수업 적정 규모 강화 비율 △모의수업 실시 강화 비율 △교육비 환원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병춘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주교대는 새로운 교육지원 체제를 개발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광한루원에서 원앙 먹이주기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광한루원서 마련된 특별 체험 관광객들에 특별한 추억 선사

남원시, 동전던지기 · 원앙 먹이주기 등 진행
소원성취 · 행운 · 건강 등 담은 기념주화 발행

남원시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광한루원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결, 건강, 소원성취, 행운, 사랑 등 다섯 가지의 주제를 담은 기념주화를 발행, 동전던지기 체험 및 원앙 먹이주기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동전던지기는 방문객들이 건강, 소원성취, 행운, 사랑 등 원원을 담아 기념주화를 복합이래에 던져 성공하면 사랑가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특별한 체험을 주고 있으며, 체험 후에도 기념주화 소장이 가능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또한 광한루원의 아름다운 연지에서

는 비단잉어와 100여마리의 원앙이 서식해 관광객들에게 먹이주기 체험 및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다채로운 색상의 비단잉어와 우아한 원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은 광한루원에서만 가능한 체험이라면서, 광한루원을 찾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멋진 추억을 많이 쌓기를 바라며,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난 4일 우석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이주민 생활지원사’ 교육과정이 첫발을 뗐다.

‘이주민 생활지원사’ 교육과정 개강

우석대 · 군장대 · 전북국제협력원 공동 개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

지난 4일 우석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이주민 생활지원사’ 교육과정이 첫발을 뗐다. 이에 따르면 이주민 생활지원사 과정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Life 2.0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학습자들이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며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주민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실

질적인 과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석대학교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이주민 생활지원사 교육과정은 단순히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주민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까지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효과적인 이주민 지원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원광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7일 오후 1시경 원광대학교 본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위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자치기구 위원장단 등 임원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학생과 함께 이루어졌다. 5.1%의 등록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학생 대표의 선창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 당시 총학생회장의 연설에서는 2024년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어 2,670억원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과정에서 약속했던 학생 복지 실현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총학생회장은 2024년에 들뜬 거짓말, 화관 리모델링 사업 실패, 일부 학과를 위한 건물 증설을 목적으로 500억 원의 대출안 서명 요구 등도 문제 삼았다. 또한 글로벌 대학 선정 과정에서 해체수근 학생 관련 인터뷰 자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 본부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장지환 총학생회장은 1월 6일 진행된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대학 측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재정 악화만을 제시했을 뿐, 인상이 학생들에게 미칠 실질적 효과나 이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글로벌 지원금과 관련해 대학 본부가 지원금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춘 점도 비난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면 서까지 등록금 인상을 감행할 필요가 없으며,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AI 디지털교과서 시범 실시 계획 없다’ 전교조 전북, 전북교육청 발표에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시범 실시 계획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냈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시범 실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평가절하된 상황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초3~교2까지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수업 혁신의 보조 수단으로 지급된 것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민중도 또

한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북지부는 뒤늦게라도 유보 입장을 밝힌 서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관리자가 ‘AIDT’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기에 일선 학교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시범 실시 계획 없음’과 더불어 ‘교과서 선정 절차를 멈추고, 교육자료로서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시급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DT 관련 예산은 부족한 교육활동비에 오히려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덕일중, 자율적 수업나눔 우수학교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덕일중학교(교장 이경희)는 자율적 수업나눔 우수학교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중 학생 중심 배움의 과정을 세밀히 관찰해 학습지원, 정서지원 등 개별 학습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외부 수업을 공개해 도내 교원들의 수업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에듀테크 기반 수업과 IB프로그래밍 운영을 위한 개편기반 탐구학습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했다. 이경희 교장은 “교사들이 스스로 수업을 공개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수업전문성이 신장되고, 또 자율적 수업나눔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립미술관 서울분관서 ‘당당질박 조병완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9~19일 서울분관에서 조병완 개인전 ‘당당질박 조병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가는 수묵화와 채색화의 사이를 오가며, 독자적인 한국화 세계를 확장해 왔다. 작가가 다루는 소재는 시대마다 변화해 왔다. 1980년대에는 도시 풍경을 담은 수묵화와 추상 수묵화를, 1990년대에는 현대인의 모습을, 2000년대에는 마음의 풍경을 담은 채색화를 주요 소재로 작업했다. 2010년대에는 민화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호랑이 형상을 선보였고, 최근까지 주변 자연환경과 사회를 반영한 소재를 다루며 한국 화단의 현주소를 탐구해 왔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일상과 주변의 풍경, 그로부터 파생하는 사유의 조각들을 형상화한 작품 약 40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당한 질박’, ‘열린’, 그리고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특히 작가는 형상을 꾸밈없이 질박하게 표현하기 위해 ‘내고악출(大巧若拙)’을 추구하는 기법적 이점표로 삼는다. 최근 작가의 작품에는 벌레와 곤충 등의 미물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질박한 형상 안에 담긴 당당한 야성과 끈질기러운 생명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다. 화면 속 사물에 담긴 정화수나 사물의 풍경처럼 소박한 형상은 보는 이의 염원 또한 겸손하게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아프고 난 후, 생각도 형상도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실감했다”며 “그림과 일상도 단순해짐으로써 더욱 높아지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